

# 한농연, 2006 정기국회 국정감사 베스트 의원 선정

| 정책조정실 박상희 과장 |

한농연중앙연합회는(이하 한농연) 2006 정기국회 국정감사 전반을 감시하기 위해 모니터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진행했다. 한농연 모니터단은 매년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 전반을 감시하였으며 한농연 선정 우수 국감의원을 선정·발표하였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한농연 선정 우수국감의원 및 의원들의 주요 발언에 대해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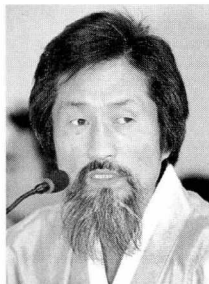


한농연은 2006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최규성(우), 홍문표(한), 강기갑(노)을 베스트 의원으로 선정하고 발표하였다.

한농연은 “현장에서 활동을 벌였던 한농연 모니터 요원들이 100만점 기준으로 성실도, 정책제안의 참신성, 농업계의원 반영도, 피감기관 긴장도, 질의의 충실성 등을 토대로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베스트의원에 선정된 최규성의원은 농민단체 의견 반영도 및 질의의 충실성에서, 홍문표 의원은 성실도 및 정책제안 참신성, 강기갑의원은 피감기관의 긴장도 및 성실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이들 의원들은 농업계가 사활을 걸고 반대하고 있는 한미FTA에 대해 농업계의 의견을 전달함은 물론 예리한 질의를 통해 정부 관계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한편, 모니터단은 올해 국감이 지난 16대 국회 국감보다 발전한 점으로 ▲정책 위주의 국감 정착 ▲권위주의적 질의태도 개선 ▲질의 충실성 향상 ▲농업계 및 농민단체 의견 반영 등 4가지를 뽑았다.

그러나 ▲정책의 참신성 결여 ▲일부의원들의 전문성 결여 ▲피감기관의 국감 무시행태 심화(농협중앙회) 등은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 - 우수국감의원 발언 녹취록 -

(농림부, 농협중앙회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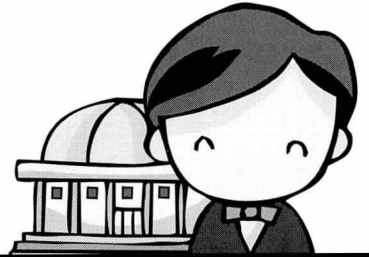
※ 농림부(일시:10월 13일, 장소:농림부 대회의실)

## ▶ 최규성(열린우리당)

- 한미 FTA 협상은 농업분야를 희생시키는 만큼의 가치조차 얻을 수 없는 협상
  - 미국의 관세는 대부분 낮은 수준으로 FTA 효과는 생각보다 많지 않음
- 정부가 추진한 농가소득보전 작물의 가격 폭락 문제 심각
  - 정부의 무분별한 콩 수입물량의 확대가 가격하락 유발
  - 정부는 농가소득보전용 대책작물의 개발과 함께 적정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 홍문표(한나라당)

- 한미 FTA 협상은 졸속 협상이며 피해 부문에 대한 대책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음
  - 칠레와의 FTA는 3년 동안의 협상을 통해 체결이 되었는데 칠레보다 경제규모가 큰 미국과 1년내로 협상을 끝낸다는 정부 주장은 말도 되지 않은 협상 전략
  -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의 경우 3자 협의기구(정부-국회-농업인)를 통한 대책 마련이 시급
- GMO(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여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음
  - 미국의 GMO 농산물 수입에 대한 농림부의 협상계획이나 대책은 전혀 없는 실정이고 국내 관련 법령 역시 마련되지 않은 상황
  - GMO 농산물의 경우 특성상 새로운 변형물질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관련 예산 확충과 대책 마련 시급



▶ 강기갑(민주노동당)

- 한미 FTA 관련 농림부 내부 보고서의 근거가 불확실하며 한미 FTA 추진 배경조차 의심
  - 공개된 보고서에서 드러난 자료는 매우 제한적인 수준으로 근거로 활용된 자료 역시 매우 빈약
  - 정부출연 연구소의 FTA 우선순위 분석에서는 중국과의 FTA가 미국보다 훨씬 우선하고 있었으며 농업 부문 피해 역시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분석
  
-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고 관련 정보 역시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음
  - 광우병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 못함
  - 농림부에서는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한 자료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관련 회의록조차 없다는 식으로 무성의하게 대응

※ 농협중앙회(일시:10월 26일, 장소:농협중앙회 신관 2층)

▶ 최규성(열린우리당)

- 금융업무 관련 농협중앙회의 금융대출관련 시스템의 총체적 점검 필요
  - 담보물에 대한 법적분쟁사실 확인 및 현장조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감정평가 기준에 대해 농협중앙회의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임의대로 감정가를 결정
  
- RPC 적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 시급
  - 매입단가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브랜드 난립, 시설 노후화, 가동률 저하 등 RPC와 관련한 문제 산적

## ▶ 홍문표(한나라당)

-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는 관계기관의 협조 속에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문제
  -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신경분리추진계획서에서 나타난 결과는 농협중앙회의 잘못된 인식을 그대로 반영
- 부당대출과 횡령 등에 관한 농협중앙회의 무사안일한 대응은 심각한 문제
  - 수천억대에 이르는 부당대출이 이루어지고 미수액은 수백억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처벌은 경미한 수준
  - 근본적으로 농협중앙회의 개혁이 필요하고 인식 수준의 변화가 필요

## ▶ 강기갑(민주노동당)

- 한미 FTA에서 미국은 정부 지원 부문을 철폐해야 한다고 요구
  - 농협을 통해 지급되는 영농자금이 폐지될 수 있음
  - 농협이 특례로 보장받고 있는 각종 세제상 특혜가 폐지될 수 있음
  - 실제 미국의 관련 보고서가 나온 뒤 재경부 농업부문 세제 개편안이 발표
- 농협이 가입하고 활동하는 한미FTA민간대책위원회는 한미FTA찬성기구
  - 최대 8조8천억원의 피해가 오는 한미FTA를 찬성하는 기구에 농협이 가입한 것은 350만 농민을 배신하는 행위
- 신경분리에 대해서 농협중앙회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신경분리추진계획서는 신경분리 저지를 위한 것
  - 회원조합은 신경분리 대상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를 반대로 알고 있는 회원조합이 상당수 있음